

## 생수의 강

요한복음 7:37-43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너무 필수적인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피의 90%가 물이고, 뇌의 80%, 살의 75%, 뼈의 23%가 물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대략 물을 3만 리터 정도 마시는데, 우리 몸은 물의 2%만 잃어도 갈증을 크게 느끼게 되고, 갑자기 7% 정도를 잃으면 혈액순환이 멎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몸이 약해지면 포도당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포도당 주사약은 5%가 포도당이고 나머지 95%는 물입니다. 알고 보면, 몸이 약해진 사람의 피에 물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물을 길어오는 여인들의 행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역의 남자들은 보통 2-3 번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들 중에 하나는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15 miles 정도를 걸어가서 물을 향아리에, 또는 가족부대에 채우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루가 걸리게 되겠지요. 물을 길기 위해 한 명의 아내를 더 두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물을 찾는 인간, 끊임없는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 어찌면 이런 모습은 인간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쉬어도 쉬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서는 명절 끝 날에,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37-38 절 말씀을 보면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목말라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노아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에서는 맏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에 비해 야곱은 어떠합니까? 누구보다도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윤리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빼놓아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했을 때 그의 잘못된 인격을 고쳐가면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해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싶어 했지요.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시편을 펴고 읽어나간다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그에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보다 세속적인 야망이 더 컸습니다. 그의 관심은 단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과 싸우는 것도,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는 것도 그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목말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셨던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빈 그물을 찢던 베드로, 세관에 앉은 마태, 세리장이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출신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을 정도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에게로 가야 목마름을 해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 갈증을 해결 받지 못하고, 강 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디로 가야 목마름을 해결 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이나 예술, 문화적인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이 배우면 영적 갈증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영적이 같증을 채워줄 생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하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가슴이 메마르고, 목마른 사람들이 가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강 같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강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론합니다.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놀라운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귀신들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베들레헬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변론하고 수군거리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명절 끝 날에 성전 앞에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생수의 강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카우퍼(William Cowper)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만 그 일에 대해 많은 긴장과 부담감을 가진 나머지,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은 점차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신착란 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이 더럽고 추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하기 시작했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테임즈 강에 빠져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을 마차에 태우고 가던 마부가 그의 표정을 수상이 여겨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강에 투신하려는 순간에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다시 음독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아직 숨 쉬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독제를 먹여서 또 살려 냈습니다. 두 번째 자살에도 실패한 그는 ‘내가 이래서는 죽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면도날을 가지고 손목의 동맥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랍게도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세 번째 시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는 꼭 성공하리라 결심하며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목을 매단 순간 또 이웃집 사람이 와서 매달려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곧 끈을 풀어 병원으로 데려가 살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황폐해진 마음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를 사랑했던 이웃들의 배려와 손길을 통하여 어느 날 교회로 초청 받게 됩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주님께서 아무 가치 없는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스가랴 13:1 의 말씀,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샘이 하나 터져 나와서 다윗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이 씻어 줄 것이다”라는 구절을 읽다가, 인간의 더러움을 씻는 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 찬송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90 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되돌아가시기 전이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그리고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다른 곳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배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라는 말은 ‘그 속에서’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within him’이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모세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꺾어 버렸습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빌 4:13 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목마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저, 성전을 적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성전 밖으로 나가 작은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게 되어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한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는 샌안토니오 연합감리교회 성도들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처럼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다른 곳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제대로 만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